

번역을 위한 다시쓰기 대상으로서의 메타담화: 전문 번역과 학생 번역과의 차이에 관한 사례연구

신 진 원
(부산대)

1. 서론

번역이란 ST의 저자, 번역가, TT의 독자가 참여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으로, ST를 둘러싼 의사소통상황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Snell-Hornby 1995: 2). ST 그리고 TT가 갖는 각각의 의사소통상황은 참여자 간의 상호방식이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저자와 독자라는 의사소통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되는 메타담화에 주목하고 번역을 위한 다시쓰기 대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한다.

메타담화란 ‘텍스트의 명제적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독자 혹은 청자로 하여금 주어진 정보를 조직화하고 명제적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돕는 수사적 장치이다’(Vande Kopple 1985: 83)이다. 또한 관련 연구들은 학술텍

스트(Abdi 2002; Hyland 1998, 1999)나 광고(Fuertes-Olivera et al., 2001). 신문 사설과 컬럼(Dafouz-Milne 2003, 2008; Le 2004; Abdollahzadeh 2007; Noorian & Biria 2010)과 같은 설득적 텍스트에서의 메타담화 역할을 조명하면서, 저자가 글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텍스트에서 메시지에 대한 반응 및 독자와의 효율적 상호작용을 이끈다고 보고한다.

이런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수사적 장치로서 메타담화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저자나 텍스트를 둘러싼 문화에 따라 메타담화의 출현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하이랜드(Hyland 2005: 87)는 메타담화의 분포나 특징이 각각의 문화 안에서 독특하게 작용하는 장르관습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저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출현양상이 달라진다는 연구들(Abdollahzadeh 2007, Dafouz-Milne 2008, Kim and Uhm 2013)도 문화 간 메타담화의 사용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번역을 위한 다시쓰기 대상으로 메타담화를 주목해야 이유는 특정 장르 안에서의 문화 간 사용양상의 차이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가 번역 품질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메타담화와 같은 수사 장치의 활용능력은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텍스트능력과 직결되어, TT의 텍스트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간 메타담화 사용양상 차이에 주목하고 글쓰기에서의 활용에 먼저 적용한 것은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이다.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에서 문화적으로 사용양상이 다른 메타담화를 비모국어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의 활용능력을 갖추지 않아 발생하는 독자와의 상호작용 실패에 주목한 것이다.

이런 실패는 번역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번역가가 비모국어인 목표언어로 번역을 수행할 때, TT독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실패로 독자와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사적 장치로서의 메타담화를 번역의 다시쓰기 대상으로

1) 반데 코펠(Vande Kopple 1985)은 저자가 텍스트에서 다루게 되는 층위를 주제에 관한 명제적, 정보적 측면에 관한 층위 그리고 명제적 내용과는 별개로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의견이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메타담화 층위로 구분하였다.

로서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교육에서의 활용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메타담화에 관한 번역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메타담화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예비번역가들의 수사적 장치 다시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어 ST와 영어 TT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을 비교하고 예비번역가와 전문번역가의 선택차이를 조명해 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메타담화의 분류와 기능

메타담화에 대한 정의와 유형구분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이다.²⁾ 이중 하이랜드와 켄(Hyland and Tse 2004: 157)는 메타담화를 ‘저자가 담화를 조직화하거나 담화의 내용 또는 독자에 대하여 취하는 저자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것이 작용하는 주요기능에 따라 ‘독자이해지원표지(interactive resource)’와 ‘독자관여유도표지(interactional resource)’로 구분한다.

‘독자이해지원표지’란 텍스트 내의 정보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장치로, 텍스트 내에서 독자를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Hyland 2005: 50). 반면, ‘독자관여유도표지’는 저자가 텍스트 내에서 다루어지는 명제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텍스트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어장치로, 독자를 텍스트 안의 논쟁에 개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Hyland 2005: 52). 두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2) 선행연구에서 메타담화를 구분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크리스모어(Crismore et al.1993), 반데 코펠(1985) 등은 텍스트적(textual) 메타담화와 상호관계적(interpersonal) 메타담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이랜드와 켄(2004), 하이랜드(2005)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상호관계적 메타담화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담화의 상호관계적 기능에 보다 초점을 둔 하이랜드와 켄(2004)의 구분을 따르도록 한다.

〈표 1〉 메타담화의 범주와 예시(Hyland and Tse 2004:169 참조)

상위범주	하위범주	예
독자이해 지원표지	논리어 (Transitions)	and, furthermore, In addition, moreover... or, however, but... so, therefore...
	구조어 (Frame Markers)	Finally, to conclude, on the conclusion... first, second... first of all, all in all...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My purpose here is to...
	지시어 (Endophoric Markers)	noted above, see Figure, as was mentioned before...
	출처어 (Evidentials)	according to A, B states that...
	예시어 (Code Glosses)	that is, namely, in other words , it means... for example, such as, in particular...
독자관여 유도표지	헤지표현 (Hedges)	may, might... is likely to, appear to... perhaps, maybe, probably... possible, probable... about, approximately...
	강조표현 (Boosters)	definitely, in fact, as a matter of fact, Indeed... it is clear that, apparently, obviously... really, actually, strongly, importantly...
	태도표지 (Attitude Markers)	surprisingly, interestingly, unfortunately... remarkably, hopefully... absurd, surprising, logical, appropriate... I agree, I disagree, prefer, believe, hope... Have to must have to, need to...
	참여표지 (Engagement Markers)	you can see... consider, note that... 수사의문문
	관여어 (Self-mention)	I, we, my, our...

먼저, ‘독자이해지원표지’ 유형 중 ‘논리어’는 주절 간의 의미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담화에서 첨가나 대조 및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를 나타내는 언어 장치다. <표 1>에서처럼 and, but, therefore, in addition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또한’, ‘그러나’, ‘그래서’ 등이 있다.

‘구조어’는 담화행위의 순서, 혹은 텍스트의 범위를 표시하여 텍스트의 전개과정을 독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분류된다. firstly, secondly와 같이 서수를 사용한 순서 표시어와, conclude, my point is 등과 같이 텍스트 안에서 내용의 전개 상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표현 그리고 now, well과 같이 주제를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어휘를 포함한다.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먼저’, ‘우선’, ‘결론적으로’ 등을 들 수 있겠다.

‘예시어’는 저자의 의도된 메시지를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바꿔 말하거나 부연하는 표현들이다. for example, in other words가 그 예가 되겠다. 한국어로는 ‘예컨대’, ‘다시 말해’, ‘즉’ 등을 들 수 있다.

‘지시어’는 as mentioned, noted earlier와 같이 텍스트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같은 텍스트 내부의 다른 부분을 지시하는 것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보충해 주고 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시한다. 한국어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래의 표와 같이’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출처어’는 according to와 같이 텍스트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당 텍스트 이외의 정보 출처를 지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포함한다. 한국어에도 ‘~에 따르면’, ‘라고 말하다’ 등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

반면 ‘독자관여유도표지’는 저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하는 명제적 내용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견해 및 태도를 독자에게 피력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들로, ‘해지표현’, ‘강조표현’, ‘개입표지’, ‘태도표지’, ‘관여어’가 포함된다.

이 중 ‘해지표현’은 ‘명제에 대한 저자의 확신이나 단정을 보류하는 장치’(Hyland 2005: 178)라 볼 수 있다. 영어에서 ‘해지표현’이 나타나는 형태로는 인식적 양태조동사(예: can, might), 양태어휘동사(예: seems, appear), 양태부사(예: perhaps, maybe), 형용사(예: possible, probable), 전치사(예: about, around)와 같이 다양하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역시, ‘아마도’, ‘대략’과 같은 부사적 표현에서, ‘약’, ‘여’와 같은 관형사, ‘수’, ‘것’과 같은 의존명사, ‘같다’와 같은 형용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조표현’은 텍스트에서 제시된 명제적 정보에 대한 저자의 확신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actually, of course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로는 ‘사실상’, ‘물론’, ‘분명한 것은’ 등이 있다.

‘태도표지’는 텍스트에서 제시된 명제적 정보에 대한 저자의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unfortunately, surprisingly, I hope* 등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바라 건데’, ‘다행히도’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should, need*와 같은 의무나 강요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독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로 간주되며³⁾, 한국어에서는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안된다’ 등이 이에 속한다.

‘개입표지’는 독자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형성하여 독자를 주제로 끌어 들이는 언어장치이다. 독자를 저자의 논의에 개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문(예: *consider, note that* 등)과 독자를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 표현(예: *you can see that*), 수사의문문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어로는 ‘~해라’ 등의 명령문과 수사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여어’는 텍스트 안에 1인칭 대명사로 저자의 존재를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글의 내용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어의 *I, we* 등을 포함하며, 한국어에서는 ‘필자는’, ‘우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메타담화는 텍스트의 결속성을 구축하고 독자에 대한 고려나 신뢰를 반영하여 저자-독자 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2 메타담화와 글쓰기

메타담화에 대한 연구는 장르 간, 문화 간 출현양상의 차이와 이 차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교육에서의 활용에 집중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설이란 특정 장르를 바탕으로 분석된 메타담화 사용양상 연구들을 살펴본다.

르(Le 2004)는 신문컬럼과 학술저널에 사용된 메타담화 출현양상을 비교하여 메타담화의 장르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르몽드(*Le Monde*)사설에서는 신문의 진지함, 엘리트의식, 독립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메타담화가 선택되고 있지만 학술텍스트의 경우는 해당 연구가 그 분야의 다른

3) 하이랜드(Hyland 2005)연구는 ‘참여표지’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다푸즈-밀네(2003, 2008), 르(2004) 압둘라자데(2007), 누리안과 비리아(Noorian & Biria 2010)와 같은 뉴스텍스트 연구에서는 모두 태도표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텍스트 분석에서 주로 선호되던 ‘태도표지’로 분류한다.

연구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메타담화가 사용되기 때문에 출현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Le 2004: 89). 이것은 메타담화의 사용양상이 텍스트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지향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문사설이란 장르의 특징을 기반으로 문화 간 메타담화의 사용양상 차이를 주목한 연구로는 다푸즈-밀네(Dafouz-Milne(2003; 2008), 압둘라자데(Abdollahzadeh 2007), 김철규(2009), 김과 엄(Kim and Uhm 2013) 등이 있다. 우선 다푸즈-밀네(2003, 2008)는 ‘더 타임즈(The Times)’와 ‘엘 파이스(El País)’에 실린 컬럼을 비교 분석하여 컬럼이라는 하나의 장르 안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간 메타담화 사용양상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메타담화의 사용양상과 독자의 설득효과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다푸즈-밀네(2003)는 영어컬럼의 경우 ‘독자관여유도표지’가, 스페인어의 경우 ‘독자이해지원표지’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영국영어와 스페인어의 메타담화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다푸즈-밀네(2008: 110)는 두 문화에서 메타담화의 출현빈도가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메타담화의 출현빈도가 너무 적은 경우에도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너무 큰 경우에도 효력이 적어진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메타담화 빈도의 적절성이 의사소통목적 실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압둘라자데(2007)는 영국과 미국 기반의 영어신문과 이란에서 발행되는 페르시아어신문사설에서의 메타담화 사용양상 비교분석을 통해, 특정 장르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주장하였다. ‘독자관여유도표지’를 중심으로 두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영어신문은 ‘해지표현’이 페르시아어신문은 ‘강조표현’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또한 이런 분석결과는 이란의 신문들이 사회적 종교적 이슈와 관련하여 맹목적인 신념으로 권력을 추종하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Noorian & Biria 2010: 66 재인용). 이것은 텍스트가 작용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메타담화의 사용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와 한국어화자의 영어메타담화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철규(2009)와 김과 엄(2013)이 있다. 우선 김철규(2009)는 영국신문 ‘더 가디언(The Guardian)’과 한국 대학생이 영어로 쓴 논설문에서의 메타담화를 비교하여 한국대학생들이 영어원어민 저자들에 비해 ‘독자관여유도표지’ 중 특히 ‘해지표현’에 속하는 양태표현을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런 차이는 저

자와 독자사이에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영어학습자의 이해가 중요하며, 영어글쓰기교육에서의 메타담화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김과 엄(2013)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들의 open-ed을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저자와 비원어민 저자의 메타담화의 사용양상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를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원어민 저자와 비원어민 저자 모두 ‘독자이해지원표지’보다는 ‘독자관여도표지’의 사용이 높다고 설명한다(179). 이것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직접적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는 신문사 설이란 장르적 관습에 따라 메타담화의 유형이 선택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영어와 한국어가 메타담화의 사용빈도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저자의 영어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영어모국어 화자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을 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은 번역을 위한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자가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설득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2.3 번역을 위한 글쓰기

김혜영(2012: 67)은 번역을 번역문이라는 글을 쓰는 글쓰기라고 소개하였다. 번역은 언어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목표문화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다시 쓰는 과정으로, 번역문은 ST의 독자와는 무관하게 목표언어의 독자의 수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신진원 2014: 96 재인용).

번역을 TT 독자를 상대로 한 글쓰기 작업으로 본 시각은 번역교육에서도 발견된다. 성초림 외(2001: 45-46)는 통번역대학원생의 번역품질평가에서 목표언어에 대한 표현 미숙이 TT 독자의 가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낸다고 보고하면서 번역가의 목표언어 글쓰기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손지봉(2008: 87-88)은 번역을 위한 글쓰기 연습의 부족과 출발어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번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번역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에서의 글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번역을 위한 글쓰기는 목표언어의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 특정 목표문화권

에서 이해되는 장르별 수사적 지식도 요구된다. 텍스트의 수사적 특성은 텍스트의 유형 및 장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언어 내에서 장르의 고유한 형식과 특성 등이 존재하고 그런 담화관습에 따라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들의 사용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적 장치를 포함한 목표언어의 장르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번역능력의 측면에서도 주장된다. 차오(Cao 1996: 328)는 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번역숙달의 구성요소로 전략적 번역능력을 꼽는다. 전략적 번역능력이란 번역언어능력(SL과 TL의 문법능력, 텍스트적 능력, 언표내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과 번역지식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의미한다. 메타담화와 같은 수사적 장치의 활용 능력에 대한 증진은 텍스트의 응집적, 수사적 구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의미하는 텍스트적 능력배양에 기여할 것이다.

언어능력배양의 측면에서 메타담화와 같은 수사적 장치에 대한 활용능력의 중요성은 텍스트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구어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Thompson 2001: 58). 독자의 가독성이 높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자가 독자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독자에 대한 인식을 텍스트 쓰기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연구의 측면에서 메타담화를 논한 김현아(2011)는 주주에게 보낸 편지의 한·영번역문과 영어비번역문에서의 메타담화를 비교 분석하여, 두 텍스트의 메타담화사용양상이 다름을 보고하면서 문화 간 글쓰기 방식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해지표현’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들어, 한국의 글쓰기와 영미권 글쓰기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김현아 2011: 245). 또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독성 증진을 위해서는 번역가가 비번역문에서 보여주는 메타담화의 사용양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번역을 글쓰기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번역가는 명제적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표언어의 수사적 장치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목표 문화에 맞추어 재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례분석

3.1 분석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번역가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중,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서 20개의 사설을 무작위로 골라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번역교육에서의 활용을 위해, 1차 분석 대상이 된 한국어원문 중 2편을 골라 예비번역가인 학생들에게 번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텍스트를 신문사가 제공하는 번역문과 비교분석하였다. 번역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대학원 번역학 전공 학생 10명이며 모두 비원어민 영어화자들이다.

신문사에서 공개하는 TT는 신문사에 소속된 번역가의 번역을 TL 원어민 에디터에 의해 수정과 교정의 작업을 걸쳐 나온 결과물이며, 학생들의 번역은 비원어민 화자로서 TL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거나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결과물로 가정한다. 이런 가정 하에 신문사의 번역생산자를 전문가, 번역작업에 참석한 학생들을 예비번역가로 지정한다.

분석방법은 분석대상을 상대로 <표 1>의 메타담화 분류기준에 따라 메타담화 하부유형 별 빈도수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용양상을 비교한다.

3.2 분석결과와 논의

한국어 ST와 영어 TT에 사용된 메타담화의 양상을 출현빈도 수의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ST와 TT에서 사용된 메타담화의 출현빈도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ST	TT
독자이해 지원표지	논리어	79	121
	구조어	1	5
	지시어	0	0
	출처어	44	42
	예시어	13	11

독자관여유 도표지	해지표현	62	95
	강조표현	12	20
	태도표지	85	73
	참여표지	8	12
	관여어	23	28
	합 계	327	407

<ST= 원천텍스트, TT= 목표텍스트>

한국어 ST와 영어 TT 모두에서 나타나는 장르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양상은 우선 ‘독자이해지원표지’보다는 ‘독자관여유도표지’의 사용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런 양상은 신문사설이나 컬럼을 대상으로 한 메타담화의 사용 양상에 관한 다른 연구(Abdollahzadeh 2007, Dafouz-Milne 2008, Kim and Uhm 2013)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이해보다는 논의되는 명제적 내용에 대한 저널리스트인 저자 자신이나 신문사의 견해 및 태도의 피력에 메타담화의 역할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부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독자이해지원표지’ 중 ‘논리어’와 ‘출처어’가 대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논리어’는 누리아와 비리아(2010) 등의 연구에서 여러 장르에 걸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메타담화로 보고되고 있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출처어’는 뉴스텍스트에서 객관적 태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독자관여유도표지’ 중에는 ‘해지표현’과 ‘태도표지’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하부유형들은 관련 연구에서 사설이라는 장르 안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Abdi 2002; Noorian & Biria 2010; Dafouz-Milne 2003, 2008). 이것은 사설이라는 장르가 제시되는 메시지에 대한 저자의 전달태도와 설득효과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성립되는 장르임을 의미한다.

번역과정상의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ST와 TT의 차이를 살펴보면, ‘독자이해지원표지’보다는 ‘독자관여유도표지’에서의 빈도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텍스트내의 정보흐름을 조절하는 방식보다는 저자의 견해를 독자에게 피력하는 방식에 있어 한국어와 영어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부유형을 살펴보면, ‘독자이해지원표지’ 가운데는 ‘논리어’가 가장 큰 빈

도수 차이를 보여준다. ‘논리어’는 한국어 ST에서 보다 영어 TT에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빈도수에서 나타난 특징과는 별개로 ‘논리어’의 구체적인 출현양상은 한국어에서 다양한 ‘논리어’가 나타난 반면 영어에서는 한정된 범위의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된다.

〈표 3〉 ST와 TT의 논리어 비교

ST	TT
도, 고, 요, 게다가, 또, 는데,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데,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 거나	and, also, however, but, for the reason, as a result, therefore, or

이런 특징은 영어번역문과 비번역문의 메타담화를 대조분석한 김현아(2011: 236)의 연구결과가 비번역문이 번역문에 비해 출현 빈도수는 비슷하나, 다양한 형태의 논리어를 사용한다는 보고한 것으로부터 유추해 보았을 때, 한국어 원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논리어가 번역과정에서 반복되는 형태의 ‘논리어’로 단순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독자관여유도표지’의 경우는 ST보다 TT에서 훨씬 많은 수의 ‘해지표현’이 사용된 반면 ‘태도표지’의 경우는 출현빈도수가 오히려 TT에서 더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TT에서의 ‘해지표현’의 증가는 한국어보다 영어에서 ‘해지표현’이 선호된다는 김철규(2009)와 김용진(1999)의 분석결과로부터 두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태도표지’의 감소는 한국어 ST의 ‘태도표지’가 영어 TT에서 ‘강조표현’이나 ‘개입표지’, ‘관여어’의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태도표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영어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구문으로 바뀐 것이다.

(예문 1)

ST: 정부는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기초연금 시행 정도로 할 일을 다 한 양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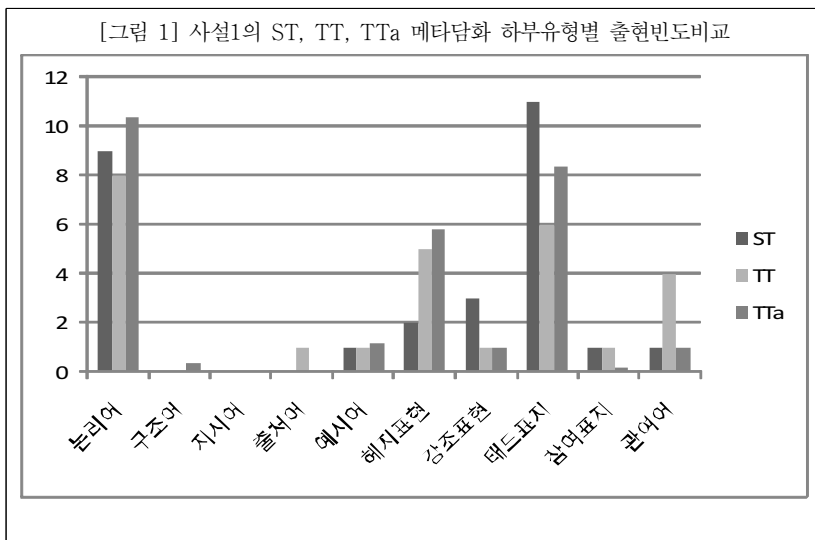
TT: It's a situation the government **can no longer afford** to ignore. **Nor is it enough to** simply implement a basic pension and declare all the necessary work done. As fast as the South Korean population is aging, **we have no time to** waste in setting up a more effective social services system for seniors.

<한겨레신문 2014.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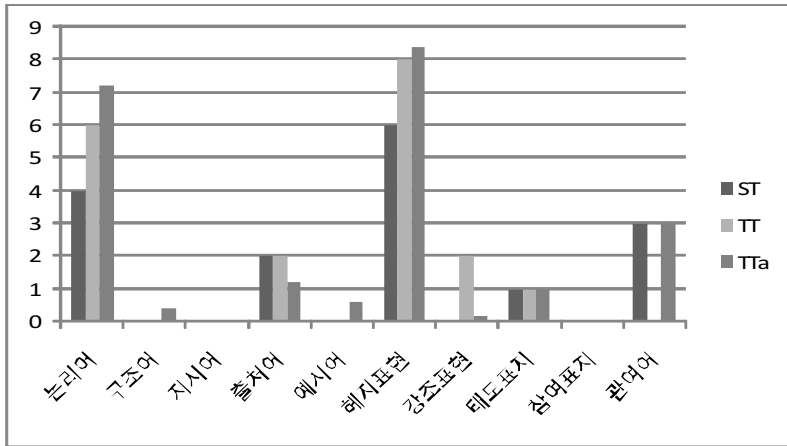
이것은 한국어사설에서 주로 의무나 요청으로 나타나는 태도표현이 영어사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번역가가 그런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예측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ST와 영어 TT에 나타난 메타담화의 출연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한국어 원문을 대상으로 예비번역가가 수행한 번역에서 메타담화 사용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중앙일보 2014년 4월 18일자 사설과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한 2014년 7월 4일자 사설에 번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전문번역가와 예비번역가의 메타담화 사용양상비교이다.



[그림 2] 사설2의 ST, TT, TTa 메타담화 하부유형별 출현빈도비교



<ST=원천텍스트, TT=전문번역가에 의해 생산된 목표텍스트, TTa=예비번역가에 의해 생성된 목표텍스트>

* TTa의 값은 각각 10명의 예비번역가의 번역에 나타난 하부유형별 메타담화 빈도 수 총계를 10으로 나눈 평균값이다

[그림 1]과 [그림 2]의 메타담화 출현양상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논리어’, ‘해시표현’, ‘태도표지’의 비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는데, 앞서서 제시한 ST와 TT의 메타담화 출현양상 분석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두 그림 공통에서 나타나는 전문번역가와 예비번역가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독자이해지원표지’의 경우 ‘논리어’와 ‘예시어’에서 예비번역가의 사용빈도가 전문번역가의 빈도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논리어’의 경우 [그림 1]에서는 전문번역가의 빈도수가 한국어 ST보다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한 반면 예비번역가의 빈도수는 증가한 양상이다.

(예시 3)

ST: 따라서 각종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쟁과 테러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수시 안전교육·훈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TT: It should come up with a white paper on all the aspects of the disaster. The document must include all the problems our society and

government have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public safety and suggest a new direction for advanced safety systems.

TTa: **Consequently**, institutionalization for regular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is necessary for a variety of safety problems, with the level against war and terror.

(예시 3)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1]과 [그림 2] 모두에서 ST에 나타난 ‘논리어’를 예비번역가가 줄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ST에는 없는 ‘논리어’를 더 추가하여 논리적 흐름에 개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록 그 빈도수는 작지만 이런 특징은 ‘예시어’에도 나타난다. ST에 나타나지 않은 예시어를 예비번역가가 첨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예시 4)

ST: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의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동북아의 갈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로 중요한 상징성과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

TT: While Chinese officials tried to tone down the significance of Xi visiting Seoul before Pyongyang, it had great meaning at a time when geopolitical tens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s have been so high among the two Koreas,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Ta: **In particular**, in the situation that discords and unstability of North East Asia are worsening due to complicate relationship between Korea, China, Japan and USA, Xi jingping's state visit itself might be enough to show a symbolic significance and diplomatic progress.

‘독자유도표지’의 경우는 ‘해지표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이 전문번역가보다 예비번역가의 선택이 ST의 출현양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태도표지’의 경우, [그림 1]에서는 전문번역가가 한국어 ST의 ‘태도표지’를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한 반면 예비번역가는 보다 ST와 같은 방식의 표현으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5)

ST: 한국 역시 일본과 외교 자체가 실종된 현 상황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어서 **안 된다.**

TT: Korea **cannot** sit idle at a time like this either.

TTa: Korea **must not** sit back and do nothing in this situation.

‘관여어’의 경우도 전문가는 TT 독자의 시점에 맞추어 1인칭 대명사들을 모두 객관적인 3인칭 대상으로 바꾼 반면, 예비번역가는 ST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시 6)

ST: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어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T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rrived in Seoul accompanied by an entourage with many top corporate executives for a milestone-setting two-day state visit to **South Korea.**

TTa: China's president Xi Jinping and his wife Peng Liyuan arrived at **our country** for a state visit, accompanied by a huge delegation on July 3, 2014

‘헤지표현의’의 경우는 ‘논리어’와 마찬가지로 ST에 비해 번역과정에서 모두 빈도수가 늘어났지만 전문번역가보다 예비번역가의 빈도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예시 7)

ST: **필요하면**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TT: The government must learn a lesson from the tragedy before the next disaster comes.

TTa: **If necessary**, a special committee for public safety must be created to better ensure the united efforts.

예비번역가의 텍스트에서 ‘헤지표현’이나 ‘논리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대학생의 영어에세이에서는 이와 같은 메타담화들이 영어원어민의 논설문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는 김철규(2009: 84)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평균한국대학생 보다는 번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예비번역가가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노출이 더 크다고 가정했을 때, 영어에 대한 지식과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헤지표현’과 ‘논리어’와 같은 메타담화의 사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장르기반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였거나 모국어로서 직관적으로 활용능력을 갖춘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번역가들의 사용빈도가 이들 보다도 더 낮다는 점은 메타담화의 출연빈도가 너무 높거나 적어도 설득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푸즈-마네(2008: 110)의 분석결과를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전문번역가와 예비번역가의 메타담화 사용양상 차이로 볼 수 있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비번역가가 ‘독자이해지원표지’의 메타담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이해를 돕기 위한 수사적 장치들에서 전문번역가보다 더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독자관여유도표지’의 경우 예비번역가는 전문번역가보다 경직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ST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용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신문사설에서 설득적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독자관여유도표지’의 메타담화를 예비번역가는 목표문화에서 요구하는 수사적 장치로 전이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논리어’나 ‘에시어’와 같은 ‘독자이해지원표지’를 추가함으로써, 독자의 논리적 이해에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특징들은 예비번역가의 작업에서 사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덜 드러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예비번역가에게 인지시키고 번역교육 안에서 목표문화에서 상용되는 장르 기반의 수사적 장치에 대한 학습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번역을 ST가 작동했던 맥락과는 별개로 목표문화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독자를 위한 글쓰기라 본다면, TT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와의 상호작용방식은 ST의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번역을 위한 다시쓰기의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 ST와 영어 TT에서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의 차이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번역가와 예비번역가의 선택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한국어 ST와 영어 TT의 분석결과는 문화 간 사용양상의 차이와 장르적 관습이 드러난다고 보고되는 메타담화의 특징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서 더 선호된다는 메타담화가 번역문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ST와 TT 모두에서 사실이라는 장르적 관습으로 볼 수 있는 ‘독자관여유도표지’가 ‘독자이해지원표지’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번역가의 사용양상은 장르적 관습을 반영하는 ‘독자관여유도표지’에서 전문번역가보다는 ST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목적 중 하나인 독자 설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참여자인 저자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는 메타담화를 번역가가 이해하고 목표언어에서 적용하는 장르관습에 맞추어 적절히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타담화와 같은 수사적 장치에 대한 이해를 번역가의 경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번역교육에서 미리 문제를 제시하고 예비번역가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낸다. 한국어만을 대상으로 한 메타담화 개념정리나 유형구분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아 두 언어 간의 명확한 대응과 비교가 제한적이다. 또한 분석텍스트의 규모가 작아 관련된 현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번역을 위한 다시쓰기 대상으로 메타담화를 고찰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번역교육 활용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방안 설계 구상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용진 (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1): 119-149.
- 김철규 (2009) 「코퍼스에 기반한 영국 신문의 논설문과 한국 대학생의 영어 논설문에 사용된 메타담화(metadiscourse) 비교 연구」, 『담화와 인지』 16(3): 65-88.
- 김현아(2011)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 및 비번역 텍스트의 텍스트 공손성 분석」, 『통번역학연구』 15: 221-249.
- 김혜영 (2012) 「번역 기사문의 다시쓰기 양상 연구」, 『작문연구』 4: 67-106.
- 성초림·이상원·이향·장현주. (2001)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번역학연구』 2(2): 37-56.
- 손지봉(2008) 「번역에서 글쓰기의 위상과 전략」, 『번역학연구』 9(3): 73-92.
- 신진원(2014)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한영번역 양상: 태도 전환의 화용론적 접근」, 『번역학연구』 15(2): 95-121.
- Abdi, Reza (2002) ‘Interpersonal Metadiscourse: An Indicator of Interaction and Identity’, *Discourse Studies* 4(2): 139-145.
- Abdollahzadeh, Esmaeel (2007) ‘Writers’ presence in English and Persian Newspaper Editorials’ in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Systemic Functional Grammar, July, 2007, Denmark.
- Cao, Deborah (1996). ‘A Model of Translation Proficiency’, *Target* 8(2): 325-340.
- Crismore, Avon, Raija Markkanen, Margaret Steffensen (1993) ‘Metadiscourse in Persuasive Writing: A Study of Texts Written by American and Finnish University Students’, *Written Communication* 10(1): 39-71.
- Dafouz-Milne, Emma (2003) ‘Metadiscourse Revisited: A Contrastive Study of Persuasive Writing in Professional Discourse’, *Estudios Ingleses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11: 29-52.
- Dafouz-Milne, Emma (2008) ‘The Pragmatic Role of Textual and Interpersonal Metadiscourse Markers in the Construction and Attainment of Persuasion:

- A Cross-linguistic Study of Newspaper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40: 95-113.
- Fuertes-Olivera, Pedro, Marison Velasco-Sacristán, Ascensión Arribas-Baño, Eva Samiengo-Fernández (2001) 'Persuasion and Advertising English: Metadiscourse in Slogans and Headlines', *Journal of Pragmatics* 33: 1291-1307.
- Hyland, Ken (1998) 'Persuasion and Context: The Pragmatics of Academic Meta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 437-455.
- Hyland, Ken (1999) 'Talking to Students: Metadiscourse in Introductory Coursebook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1): 3-26.
- Hyland, Ken (2005).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Oxford: Continuum.
- Hyland, Ken and Polly Tse (2004) 'Metadiscourse in Academic Writing: A Reappraisal', *Applied Linguistics* 25(2): 156-177.
- Kim, Se-in & Uhm, Chul-Joo (2013) 'L1 and L2 English Writers' Metadiscourse Use in the Argumentative Essays of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4): 165-183.
- Le, Elisabeth (2004) 'Active Participation within Written Argumentation: Metadiscourse and Editorialists' Authority', *Journal of Pragmatics* 36: 687-714.
- Noorian, Mina & Reza Biria (2010) 'Interpersonal Metadiscourse in Persuasive Journalism: A Study of Texts by American and Iranian EFL Columnists', *Journal of Modern Language* 20: 64-79.
- Snell-Hornby, Mary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Revised Ed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Thompson, Geoff (2001) 'Interaction in Academic Writing: Learning to Argue with the Reader', *Applied Linguistics* 22(1): 58-78.
- Vande Kopple, William (1985) 'Some Exploratory Discourse on Metadiscours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6: 82-793.

부록

ST와 TT 대조분석에 사용된 신문사설출처

(*볼드체는 예비번역가와 전문번역가의 비교분석에 사용된 사설)

No.	제목	출처
1	보육교사가 주먹질하는 어린이집 이곳뿐인가	동아일보 2015. 1. 15
2	코미디 영화 해킹한 북, 미제제는 코미디가 아니다	동아일보 2015. 1. 5
3	북의 사이버 테러에 미국처럼 강력 대응해야	동아일보2014. 12. 24
4	일본의 침묵에 미국 정부가 목소리 높인 위안부 문제	동아일보 2014. 8. 7
5	치솟는 원화 가치, 손놓고 있을 단계는 지났다	동아일보 2014. 7. 4
6	제2의 김군 막을 테러방지법 서둘러야	중앙일보 2015. 2. 26
7	국제 유가 하락 앞서서 즐길 때 아니다	중앙일보 2015. 2. 10
8	한·중 관계 새 이정표 세운 시진핑 방한	중앙일보 2014. 7. 4
9	제대로 된 국민 안전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중앙일보 2014. 4. 18
10	F1 대회에 1조 쏟아붓고 위약금까지 물게 된 전남도	조선일보 2015. 2. 11
11	한·미·일 ‘군사 約定’, 美 서명 후 사흘이나 숨겼더니	조선일보2014. 12. 31
12	지방·수도권大 취업률 역전, ‘직장 눈높이 낮추라’	조선일보 2014. 9. 1
13	이번에도 ‘기본’ 짚아뭉개는 ‘不實 사회’가 재앙 불렀다	조선일보 2014. 4. 19
14	韓·美·日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가야 할 길	조선일보 2014. 3. 27
15	韓日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이 해야 할 일	조선일보 2013. 8. 21
16	화제 사전검열로 영화마저 망칠 셈인가	한겨레신문 2015. 2. 2
17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없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14. 11. 25
18	독거노인 자살 부른 공허한 복지정책	한겨레신문 2014. 11. 2
19	남북관계 개선 적극 모색할 때다	한겨레신문 2014. 7. 7
20	꿈쩍 않는 ‘174’의 안타까움	한겨레신문 2014. 4. 23

[Abstract]

Matadiscourse Use In News Editorial Translation

Shin, Jin-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portant the right use of metadiscourse as rhetorical devices is for translation of genre-specific text. For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metadiscourse in news editorials given by Korea's leading news agencies and their translations;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professional and trainee translators' choice.

The results revealed that 'interactional resources' were more present than 'interactive resources' in both Korean ST and English TT. This finding substantiated the view that 'interactional resources' were an essential feature of newspaper-genre writing.

Concerning differences between professional and trainee choic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rainee translators tended to make more translation shifts in 'interactive resources' than their counterparts. On the contrary, professional translators made a variety of shifts in 'interactional resources' such as boosters, attitude markers, engagement markers, self-mention. These differences could be attributed to the amount of translator's knowledge on the generic conv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ight be beneficial to pedagogical grounds for trainee translators' writing. Metadiscourse is not easy for non-native speakers to fully understand and produce in a genre-specific text. Unfortunately, however, a lack of understanding in metadiscourse use may result in unintentionally unnatural transl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inform trainee translators of the differences that occur in the conventions of

metadiscourse use between ST and TT. This knowledge can help trainee translators produce texts that are more effective or reader-based.

▶ Key Words: metadiscourse, news editorial, re-writing for translation, interpersonal meaning, interaction with readers.

신진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플러스 글로벌 영상번역 창의인재 교육-연구 혁신 사업단 소속 연구원

sabinashinil@hanmail.net

관심분야: 뉴스번역, 번역교육, 체계기능문법

논문투고일: 2015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8일